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원현. 베드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귀태. 안셀모 916-847-8202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 제1독서 | 이사야서 61:1-2. 10-11 | 제2독서 | 테살1서 5:16-24 | 복음 | 요한 1:6-8, 19-28

◎말씀 < 자선과 신앙생활 >

오늘은 대림 제3주일이며, 자선주일입니다.

자선활동은 육체적으로나 영신적으로 궁핍한 이들을 돕는 사랑의 행위이며, 특히 가난한 이들에게 베푸는 자선은 형제애의 주요한 증거이고, 정의의 실천하는 일이며,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가톨릭교리서 2447항)

한국 천주교회는 1984년 교회 창립 200주년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대림 제3주일을 자선주일로 제정하였습니다.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전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더하여, 구세주 탄생의 기쁨을 충만하게 나누는 의미가 큼니다. 예수님은 물질적 궁핍, 부당한 억압, 육체적 정신적 질병, 죽음 등과 같은 인간의 비참을 몸소 짊어지시고 형제들 가운데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들과 같아지시려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초기부터 끊임없는 자선사업을 통해서 그들을 구제하고, 보호하고, 자유를 주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2017년 연중 제33주일을 '세계 가난한 이의 날'로 제정하고 제1차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사도들이 가난한 이를 돌보는 직무를 만든 것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가난한 이들을 섬기러 나가는 표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전 신자가 자선활동에 참여하기를 권고하며, 활동의 성격에 따라 연중 세 차례에 걸쳐 특별헌금을 실시합니다. 자선주일인 오늘은 국내 불우이웃 돕기를 위해, 1월 마지막 주일은 사회복지주일로 한국 카리타스의 해외원조를 위한 자원마련을 위해 활용합니다. 그리고 사순절에 실시하는 헌금은 각 교구별 사회복지활동 자원으로 사용됩니다.

전례 독서에서 예언자 이사야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소식을 전하도록 파견되고, 사도 바오로는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권고합니다. 가난한 이들이 사랑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나라의 행복으로 이르는 길을 걷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황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로우신 사랑을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가난한 우리 형제자매에게 연민의 마음으로 자비의 활동을 실천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언합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드리는 그의 자기희생은 철저한 금욕생활로 실천되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베푸는 우리의 자선도 기도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신앙생활에 달렸습니다. 가난한 이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주시길 바랍니다.

일 자	전 레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12월 15일(화)	대림 제3주간 화요일		교 무 금	\$ 3,370.00
			주일헌금	\$ 805.00
12월 16일(수)	대림 제3주간 수요일		미사예물	\$ 110.00
			성소후원	\$ 230.00
12월 17일(목)	대림 제3주간 목요일		사회복지	\$ 260.00
			성물방	\$ 50.00
12월 18일(금)	대림 제3주간 금요일		기타수입	\$ 0.00
			ACA Rebates	\$ 0.00
12월 19일(토)	대림 제3주간 토요일		합 계	\$ 4,825.00
12월 20일(일)	대림 제4주일	오전 10시	미사참례자	학생: 1명 성인: 64명

교무금  
 봉헌자

권영일. 박병수. 박종운(11-12) 정규선(8-12) 강석만. 김상범(7-12) 백정심(10-12) 김채홍(11)  
 김규철. 김은영. 김주동. 김상돈. 김운태. 전정옥. 안강순. 남필레. 전기례. 지복원. 김규대. 지영욱(12)  
 최정신(1-3월/21년)

◎신앙생활(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가장 큰 계명 - 사랑

복음서에서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전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서는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사랑의 이중계명’, 즉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 22,34-40 참조)

율법(律法, 히브리어 Torah(토라))이란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도덕적, 종교적, 법률적 규범들을 말합니다. 율법의 중요한 내용들은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성경의 첫 다섯 권의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의 하느님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지요. 그런데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에 여러 규정과 법규들이 추가되면서 세부 조항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예수님 시대에는 613개 조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율법조문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고,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이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지닌 그들을 자주 꾸짖으셨습니다.

하느님의 법은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의로움을 위해 주어진 것인데, 그들은 율법과 계명에 담긴 하느님 사랑의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말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일깨워주신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계명을 충실히 지킬 때에 흔들림 없이 하느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정한 신자들의 의무 규정으로서 정해진 때에 미사와 성사에 참여하고, 절제와 봉사의 삶을

살며, 교회 공동체의 여러 역할에 동참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지녀야 할 것이 바로 ‘사랑’의 정신입니다. 이는 성당에 있을 때에만, 혹은 기도를 하거나 봉사활동을 할 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터와 가정, 학교 등 모든 삶의 자리와 그 안에서 맺게 되는 모든 관계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죄를 짓지 않고 정해진 규정들을 잘 지키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느님의 이끄심에 따라 더 선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느님의 자비하심이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기준임을 기억하며 나와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자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태옥.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엄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김초지.마리아/이규청.제노비아/엄모니카  
배미성.오티리아/박모란.글라라/고공자.벨라뎃타  
신용경.그레고리오/이상일.마리아/곽화근.요한  
신상철.사무엘
- ◎기도 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울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이순애.엘리사벳 영혼	박원상.토마스	생	곽화근.요한 건강회복	곽유경.데레사
연	최철호 영혼	최정신.데레사	생	장영란.젼마 영육건강	임정남.실비아
연	안영진.로사 영혼	연영희	생	이호순.수산나 건강회복	류가브리엘라
연	서광주.아오스딩 영혼	서상훈바로로	생	박재홍.요셉,박재형.안토니오 박성영.수산나,최성호.토마스 영육건강	이나숙.데레사
생	(생일)이종만.모세 영육건강	임그라시아			
생	손덕순 짝 건강회복	임그라시아			
생	윤은실.비비안나 영육건강	윤알베르도			

**간**  
**장**  
**증**  
**지**

◎감사◎

외롭고 슬프로 고단할 때도 많았지만  
내 세상 끝 날에 흑 눈물 흘릴지라도

오늘 내가 드릴 말씀은 ‘고맙습니다. 주님.’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은 ‘감사합니다. 주님.’  
마종기.노렌조 시인/의사

(광고)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b>Samurai Sushi</b></p> <p>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Bradshaw Optometry</b></p> <p>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b>1.2.3 Auto Body정비</b></p> <p>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좋은사람들, 좋은아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p> <p></p> <p>510-688-0155 베로니카 510-688-0157 레이몬드</p>
<p><b>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b></p> <p>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 cell</p>	<p><b>에어컨 수리</b></p> <p>Air Conditioner Service &amp;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b>SNOW WHITE DENTAL</b></p> <p>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b>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b></p> <p>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p><b>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b></p> <p>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b>Hair Story Salon</b></p> <p>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b>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li> <li>·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li> <li>·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li> </ul> <p>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a href="mailto:maryseo@gmail.com">maryseo@gmail.com</a>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p><b>최병엽공인회계사</b></p> <p>Byungyeub Choi CPA &amp;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b>장의사</b></p> <p>W.F.Gormley&amp;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a href="http://www.gormleyandsons.com">www.gormleyandsons.com</a>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p>동부뉴욕 4박5일 관광 엘로스톤 유럽 관광전문</p> <p><b>게스관광</b></p> <p>(480)244-0033 카카오톡:guesstour <a href="http://www.guesstour.com">www.guesstour.com</a></p>	<p><b>Suzie Hair World</b></p> <p>2901 Mather Field Rd, #A, Rancho Cordova CA 95670 윤수산나 (916)368-8000</p>
<p><b>Print N Signs</b></p> <p>Signs/Banners/T-Shirt Wrap/Windows Tint Soheil Samiee (916)844-0280/914-3794 <a href="mailto:PrintsNsigns16@gmail.com">PrintsNsigns16@gmail.com</a> 9336 La Riviera Dr. #B</p>	<p>♡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p> <p>성당에 제출할 <b>CHECK 발행하실 때</b></p> <p><b>Payee to: St.J.H.C</b></p>		

◎공동체 소식(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1구역(FE).2구역(FO).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오늘은 대림 제3주일이며 자선주일입니다.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며, 깨어 준비하는  
은혜로운 대림절 되시기 바랍니다.

- 1.주일 야외미사  
최근 COVID-19 재확산에 따른 교구방역지침에 따라 당분간 10시 교중미사가 야외미사로 집전됩니다. 미사후 자발적으로 정리정돈에 참여해 주시는 교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2.평일 온라인미사 (문의:각구역장)  
일시:오후6시(동영상),오후7시30분(Zoom 미사)  
금요일과 일요일은 온라인미사 없습니다.  
집전:김원현.베드로 본당주임 신부님
- 3.St.Mary's 천주교묘소 한국섹션 완공안내  
묘소완공:21년1월(예정)/안장:21년2월부터가능  
선종하신 가족을 모실 교우분은 연령회장님께  
미리 신청바랍니다. (신부님과 일정조율 필요)  
문의:고원석.바로로 연령회장(916-813-4440)
- 4.주님!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8일(화) 선종하신 안영진.로사자매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많은 기도 바랍니다.  
(안병훈.스테파노 모친/안혜숙.세실리아 시모)
- 5.2021년도 달력 배부안내 (사무실)  
배부기준:1가정당 1부  
배부일시:매주 금~일(오전11시~오후4시)
- 6.교구2차헌금  
일시:13일(일) 교중미사  
목적:Retirement Fund for Religious
- 7.정혜도서관 개관 및 대출도서 반납안내  
개관일시:13일(일)교중미사후  
도서반납:정혜도서관 또는 사무실

◆미사시간 변경안내

주일미사;일요일 오전10시(교중미사)  
평일미사;당분간 없습니다.  
미사참례자는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모임 및 회합.행사 중지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연장합니다.

◆교무금과 주일헌금 봉헌

교무금과 주일헌금은 주님께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교회 유지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재원으로 신자들의 의무사항입니다.  
미사참석이 어려우신 분은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Check 발행시: ST. J.H.C.)

◆ 미사 참례시 안내사항

- 미사 전후에 성당을 소독합니다.  
(미사 장소와 친교실, 화장실 등)
- 미사 참례자는 성당 입구에서 손 세정제를  
사용한 뒤 성전에 들어갑니다.
- 미사 참례자는 다른 사람과의 간격을 1미터  
이상 유지합니다. 다만, 가족은 예외입니다.
- 모든 신자는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  
하고 성체를 모실 때만 마스크를 벗습니다.
- 미사중 신자가 함께하는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의 응답부분은 해설자가  
대신하고, 성가는 필요에 따라 독창이나 오르간  
반주로 대신합니다.
- 성체분배 전, 주례 사제는 제단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만 외치고 성체분배  
시에는 사제와 성체분배자 모두 침묵 중에  
성체를 분배하고, 양형 영성체와 입으로 하는  
영성체는 금지합니다.
- 미사 중(평화의 인사등) 뿐만 아니라,  
미사가 끝난 후에도 악수 등 다른 사람과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화답송



내 영혼이 내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네

전례봉사	대림제3주일(12월13일)	대림제4주일(12월20일)	예수.마리아.요셉 성가정축일(12월27일)	주님공현대축일(1월3일)
복사	김규철.레오	최진호.다니엘	최준우.루카	송돈희.요셉
헌금위원	레지오 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